



한·미 FTA, “품목 차별화로 돌파구 마련해야”

한국축산경영학회 심포지엄서 각계 의견 모아

▲ 전 아르헨티나 대사 최양부 박사가 기초강연을 하고 있다.

>>> [취재 _ 오세진]

한·미 FTA에 대응해 우리 축산물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의 당위성과 시기 등을 놓고 정부와 학계, 각 축산 단체 등에서 다양한 시각차가 나타났다.

한국축산경영학회가 14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돼지고기 차별화를 위해 2년전 정부에 돼지고기 전 두수에 대한 생산이력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다”며 “차별화에 대해서는 뜻을 들이면서 개방은 서두르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도 “이번 FTA가 쇠고기 개방 때문에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차별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품목별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에 대응한 한국축산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축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6월 본격 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가 축우·양돈·양계 산업 등 각 축산 분야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전 아르헨티나 대사 최양부 박사는 기초강연을 맡아 GATT-UR협상 등에 참여한 현장 경험을 들려주며 “WTO-DDA 협상과 한·미 FTA를 비롯한 다양한 FTA 확대로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적인 농업무역자유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만큼 FTA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등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농업도 적극적으로 눈을 해외로 돌리자”고 FTA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쇠고기 산업 분야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는 한·미 FTA가 국내 쇠고기산업에 대해 미치는 파급효과를 부분균형 복수시장구조모형으로 분석하며 “관세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쇠고기산업의 수익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관세가 폐지될 경우 5~6천억 가량의 수입 손실이 예상된다”며 “한우쇠고기를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하는 정책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FTA 대응방안으로 쇠고기가 협상시 민감



▲ 정경수 교수

품목으로 분류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과 쇠고기 수입관세를 한(육)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FTA와 같은 방식으로 품질 향상을 꾀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재 한우협회가 추진중인 'DNA 판별법을 이용한 한우육 판별'을 통해 수입육이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유통감시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양돈산업 분야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소국(small country)이라는 명제를 검증하며 수입수요탄력성과 수입산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체성을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아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 양돈 시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가격에 수입수요와 국내산 수요가 탄력적으로 움직여 시장개방의 확대가 수입수요의 증가와 그에 비례한 국내생산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결과에 따라 "FTA 협상 시 축산물 전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적합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양돈산업은 축산업 전반보다 가격이 탄력적이므로 정책적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직불제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고품질 돼지고기의 생산,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것 등을 강조했다.

닭고기 산업과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는 관세 감축에 따른 국

내 닭고기 시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행 20%의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닭고기 수입 가격은 16.7% 하락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밝히며 협상전략으로 관세감축 기간 장기화와 특별 긴급관세(SSG) 확보 등을 강조했다.

국내대책으로는 계열업체의 공급조절 능력 제고와 최근 '지방과의 전쟁(fat war)'이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며 닭 가슴살 등 백색육에 대한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닭고기의 품질 향상 및 출하체중의 다양화에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자조금을 활용한 국내산 닭고기의 홍보, 민간자율수급조절기구인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역할 증진, 소득보전적 불세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자유토론을 통해 고흥축협 신광식 조합장은 "5천년 역사와 혼이 담긴 쌀과 제2의 생명인 축산을 놓고 벌이는 협상인데 어떻게 FTA를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느냐"며 "이번 협상 과정에 정작 농·축산인들이 참여가 적었고 생산·소비자 단체, 언론사가 함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건국대학교 최승철 교수는 "한·미 FTA는 중국전체 등 정치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책들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농협중앙회 이계영 팀장은 "토종닭에 대한 구분과 인증 등을 통해 양계 산업도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⑤



▲ 김민경 교수



▲ 정민국 박사